



차유람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PBA·LPBA 챔피언십 64강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사진제공 | PBA투어

차유람 “너무 못 졌다” 흑독한 3쿠션 신고식

신한금융투자 챔피언십 64강 탈락

종목을 바꿔 맞이한 4년만의 현역 복귀전은 예상대로 녹록치 않았다.

‘당구 여신’ 차유람(32)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PBA·LPBA 챔피언십’ 64강에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주종목인 포켓볼이 아닌 3쿠션으로 처음 치른 공식경기에서 높은 벽을 체험했다.

쉽지 않은 프로 데뷔전이었다. 2015년 은퇴 선언 후 4년만의 복귀를 앞두고 긴장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차유람은 이날 경기 초반 쉬운 포지션의 공들을 여러 번 놓치는 등 고전했고, 결국 32강행 티켓을 따내지 못한 채 3쿠션 데뷔전을 마쳤다.

히가시우치 나츠미(일본), 김갑선, 박수아와 64강전을 펼친 차유람은 첫 공격이 키스로 불발된 뒤 횡단샷(2이닝), 앞돌리기(3이닝), 빈쿠션(4이닝), 뒤돌려치기(5이닝) 등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첫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6이닝에서는 제한시간(30초) 초과로 파울을 범하기도 했다. 포켓볼 선수 출신으로서 아직은 3쿠션 경기가 낯선 느낌이 묻어나왔다.

기다리던 첫 득점은 12이닝 쯤 나왔다. 경기 시작 35분여가 흐른 시점에서 타이머가 울을 신청해 숨을 고른 뒤 빗겨치기로 첫 득점을 올렸다. 차유람은 이 기세를 몰아 3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쟁자들과 격차를 줄여나갔다. 그러나 선수 4명이 공격을 통해 점수를 빼앗고 내주는 서바이벌 경기에서 차유람은 끝내 최하위로 처지고 말았다. 초반부터 앞서 나간 히가시우치가 78점을, 김갑선과 박수아가 나란히 46점을 획득한 반면 차유람은 가장 적은 30점을 기록하면서 64강에서 탈락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던 차유람은 경기를 마친 뒤 “너무 못 쳐서 소감있랄 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못 치지는 않는데 오늘은 정말 득점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자책했다. 이어 “걱정한 대로 경기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테이블 위에서) 엎드린 뒤 감각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인데 제한시간이 넉넉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합격했던 데뷔전을 마친 차유람은 테이블 적응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직 3쿠션 전용 테이블이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마다 달라지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자신의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아직 스스로를 프로라고 부르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며 맛쩍게 웃은 차유람은 각오를 다지며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오늘 이렇게 졌으니 아마 제가 알아서 흑독하게 연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잠실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울산 김도훈 감독이 본 라이벌 전북의 김승대 영입

“빨라진 전북 축구…완전 다른 색깔 됐다”



울산 김도훈 감독

“김승대 가세로 최전방 스피드 업
서울전 스리백 가동 등 변화 눈길
결국 경기력 싸움…선두 경쟁 기대”

울산 현대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에서 타이틀 방어를 노리는 전북 현대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다. 울산은 22일 현재 14승5무2패로 승점 47을 마크하며 선두 전북(14승6무2패·승점 48)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은 울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한 전북과 달리 24일 상주 상무와 홈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를 통해 1위 탈환을 꿈꾸고 있다.

각 팀은 울스타 브레이크를 마치면 정규 라운드 11경기를 더 치른 뒤 스플릿 라운드 5경기를 추가로 펼쳐야 한다. 울산 김도훈 감독은 결국 전북과 타이틀 경쟁을 벌일 것으로 판단하면

서 최근 전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은 김신욱이 상하이 선화로 이적 뒤 포항 스틸러스에서 김승대를 영입했다. 또한 외국인선수 추가 발탁도 계획하고 있다. 부상 치료차 브라질로 떠난 아드리아노와 결별하고, 대체 자원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김 감독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은 김승대의 합류다. 김승대는 전북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경기였던 21일 FC서울과의 원정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좋은 활약을 선보이며 빠른 적응력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김신욱이 있을 때의 전북과 김승대가 합류한 전북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다. 확실치 스피드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신욱이 있을 때도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했지만 로페즈, 문선민, 김승대 등 빠른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다.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좋더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또한 김 감독은 “서울전에서 전북이 스리백을 가동했다. 전북의 중앙수비수 자원이 워낙 좋고, 많긴 하지만 조세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는 잘 선택하지 않았던 수비 전술여서 눈길이 갔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적지 않은 변화를 시도한 반면 울산은 안정을 택하고 있다. 큰 변화 없이 여름이적시장을 마칠 계획이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력을 대거 보강한 울산은 추가 영입 없이도 풍부한 가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감독은 “결국 경기력의 싸움이라고 본다. 반드시 이겨야하는 경기에서 승점 3을 획득하고, 어려운 경기를 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라이벌전의 열기는 K리그의 흥행과 직결된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현대기(家) 더비’ 또한 K리그의 대표적인 라이벌 매치다. 14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북-울산전이 끝난 뒤 인사를 나누는 양 팀 선수단.

‘전설 매치’ ‘현대가 더비’…K리그 흥행 부르는 라이벌 매치

〈전북-서울〉

〈전북-울산〉

프로와 실업팀을 섞어 5팀으로 1983년 출범한 프로축구 K리그의 초창기 대표적 인 라이벌은 대우 로얄즈와 포항제철 돌핀스다. 럭키금성 황소와 현대 호랑이도 명문 구단이었지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축구사랑은 특별했다. 그 때문인지 두 구단의 경쟁의식은 도드라졌다. 적극적인 투자로 K리그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삼성그룹이 프로축구에 뛰어든 1996년 이전까지의 우승 횟수는 두 구단 모두 나란히 3회씩을 기록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은 안양 LG(FC서울)와 수원 삼성의 라이벌전이 K리그를 지배했다. LG가 연고를 서울로 옮긴 이후에도 슈퍼매치는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K리그를 선도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급부상한 구단은 전

북 현대다. 현대자동차의 뒷받침 속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지방 구단의 한계를 딛고 우뚝 섰다. 프런트와 감독, 선수, 응원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기존 강호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팀으로 만든 건 K리그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은 6번이나 우승하며 왕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특정 구단의 일방적인 페이스는 리그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전북 왕조가 구축된 뒤 우승 레이스는 싱거웠다. 전북이 6번 정상에 오르는 동안 FC서울이 3번 우승하며 그나마 대항마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북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등 위기까지 몰리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올 시즌 반등에 성공한 서울은 전북과의 ‘전설매치’(전북과 서울의 앞 글자를 딴 명칭)를 되살렸다. 전주에서 열린 올 시즌 첫

번째 전설매치는 후반 추가시간 한승규(전북)의 극강골로 막을 내렸다. 1만5127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축구의 재미를 제대로 선사했다. 지난 주말 상암에서 열린 2번째 매치도 뜨거웠다. 2만8000여명의 관중을 기록한 가운데 버스 19대에 나눠 타고 온 전북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눈길을 끌었다. 웅변한 구단의 홈 팬 규모를 갖춘 원정 팬들은 K리그의 리딩 클럽이었다.

물론 서울의 투지도 불만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승부근성은 고무적이었다. 치고받으며 6골이 터진 것도 재미 요소였다. 전북전 5연패를 했지만 패자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다시 설욕을 노려야한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북의 독주를 막을 팀으로 울산 현대가 지목됐다. 실제 두 경을 열어본 결과 예상대로 울산의 추격은

초창기 대우-포철 모기업 대리전 양상
안양 LG-수원 삼성 ‘슈퍼매치’로 진화

매서웠다. 우승 전력을 과시한 울산은 전북과의 ‘현대기(家) 더비’를 K리그 대표 라이벌전으로 만들었다. 더비 1차전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김보경의 PK골로 홈 팀 울산이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전주에서 열린 2차전은 팽팽한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1-1로 비겼다. 2차전은 서울전보다 많은 1만7728명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현대가 더비는 마지막까지 뜨거운 전망이다.

영원한 독주는 없다. 라이벌전을 통한 추격과 역전, 재역전이 오가야 재미를 더한다. 감독 교체로 시험대에 오른 전북을 두고 울산과 서울이 펼치는 도전은 최고의 흥밋거리다. 물고 물리는 승부 속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기회의 땅’ 성남서 새 출발 나선 박원재

전북서 임대…곧바로 출전 기회
“감독님·동료들 기대에 부응할 것”

스포츠 선수는 경기장에서 땀 때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에 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남FC 수비수 박원재(25)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치가 높지 않은 선수였다.

2017년 전북 현대에 입단했지만, 지난 2년간 K리그1에서 3경기를 땀 것이 전부다. 전북은 선수 층이 두꺼운 팀이기 때문

에 박원재가 땀 자리가 없었다.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었던 박원재에게 성남이 손을 내밀었다. 성남은 15일 박원재의 임대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곧바로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성남 남기일 감독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1 2019’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코백 수술로 명단에서 빠진 주현우 대신 박원재를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시켰다.

박원재는 후반 37분 최오백과 교체 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오랜만의 출전인데다 이적 직후 팀 적응이 될 땐 상황에



박원재

비록 원했던 경기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였다. 박원재는 “전북이라는 명문 팀을 떠난다는 것이 서운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많이 땀을 흘리는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남 감독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이적 직후 감독님을 만났

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며 자신감을 주셨다”고 성남 이적에 큰 의미를 뒀다.

어렵게 온 기회다. 박원재는 이를 발판 삼아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전북에서는 간간히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감사하게도 경기에서 많이 뛰지 못한 내가 성남에서 기회를 얻었다. 팀, 감독님,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며 “또 좋은 플레이를 통해 내게 기회를 준 감독님께 보답을 하고 싶다. 휴식기 동안 몸 잘 만들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